Session 13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Jn. 14:21-31)
 제13강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 (요 14:21-31)

1. Review: the Spirit empowers the redeemed (Jn. 14:15-20)
복습: 성령님은 구속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요 14:15-20)
	1. The call to love God is the point that Jesus repeated most in John 13-17. Jesus linked loving God with obeying God five times in John 14— (14:15, 21, 23. 24, 31).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1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요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섯 번이나 연결하셨다 (14:15, 21, 23. 24, 31).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21He who…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
23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24He who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31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Jn. 14:15-31)
15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2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 24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31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 (요14:15-31)

* 1. Jesus identified the Helper as “the Spirit of truth” (14:17; 15:26; 16:13) who communicates truth to His people. He guides them into the truth about God, His Word, will, their personal life, and more.
	예수님은 보혜사를 당신의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영”(14:17; 15:26; 16:13)이라고 밝히셨다. 성령님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 뜻, 개인 생활 등에 대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16…the Father…will give you another Helper…17the Spirit of truth…you know Him…
(Jn. 14:16-17)
16…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7그는 진리의 영…너희는 그를 아나니 … (요 14:16-17)

* 1. A vibrant walk with the Spirit is essential in our quest to experience more of God. It is futile to seek
	deep experiences with God while neglecting the Spirit’s presence and His leadership in our lives. We cannot go deep in God with a dull spirit. To fellowship with the Spirit is a glorious privilege.
	성령님과의 활기찬 동행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려는 우리의 탐구에 필수이다.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리더십을 무시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는 둔감한 영으로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14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2 Cor. 13:14, NAS)
13…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 13:13)

1If you have any…comfort from His love,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Phil. 2:1, NIV)
1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빌 2:1)

* 1. Jesus made a dramatic declaration calling His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union that He enjoyed with His Father as a Man (14:20). The disciples came to know that Jesus was “in” the Father, and they were “in” Jesus, and Jesus was “in” them. “That day” refers to the day of His resurrection and also to the day of Pentecost (Acts 2). His resurrection appearances convinced them of His deity or that He was “in” the Father—and of their union with Him, or that they are “in” Him and He “in” them. We can talk to Him about this truth by saying, “Thank You for being in me, show me more!”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아버지를 즐기는 연합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드라마틱한 선언을 하셨다 (14:20).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날” 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오순절의 날을 가리킨다 (행 2장).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 시켰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는 “내 안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보여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이 진리에 대해 예수님과 말할 수 있다.

20At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in Me, and I in you.” (Jn. 14:20)
20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14:20)

* + 1. By saying, “You are in Me” and “I in you” in 14:20, Jesus added to what He said in 14:10,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is was a new revelation to them.
		예수님은 14:10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고 말씀하신 것에다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는 말씀을 14:20에서 더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였다.

10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11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sake of the works…
(Jn. 14:10-11)
10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1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14:10-11)

* + 1. John 14:20 is one of the most glorious statements in the Scripture—He applied the relational reality that He enjoyed with the Father in His humanity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This is the climactic point of John 14. It is how we overcome trouble and mature in love (14:1, 15).
		요 14:20은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은 인성 안에서 아버지와 누렸던 관계적 실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절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가이다 (14:1, 15).
	1. Jesus developed what He declared here in 14:20 by what He taught in 15:5-7. Bringing our thoughts and words into agreement with the Spirit is a key part of abiding in Him and Him abiding in us.
	예수님은 여기 14:20 에서 선언하신 것을15:5-7 에서 가르치시며 발전시키셨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성령님께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핵심 부분이다.

5“…He who abides in Me, and I in him, bears much fruit…7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Jn. 15:5-7)
5…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7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5-7)

1. All Believers are called to enjoy God’s manifest presence (Jn. 14:21)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를 즐기도록 부름 받았다 (요 14:21).
	1. In 14:15, Jesus connected loving Him with obeying Him. In 14:21, He repeated this and added two new truths—that He and the Father will *love them* and that Jesus will *manifest Himself to them*.
	Our union with God includes experiencing His manifest presence on our mind and emotions.
	요14:15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을 연결하셨다. 14:21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하시며 두 가지 새로운 진리를 추가 하셨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그분의 현현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포함된다.

21“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 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manifest Myself to him.” (Jn. 14:21)
21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1)

* 1. ***It is he who loves Me***: This is one of the most glorious things that Jesus can say to a person.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 중 하나이다.

21…Lord said 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t. 25:21)
21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마25:21)

* 1. ***Will be loved by My Father***: The Father loves—enjoys and esteems—the life choices and fruit of those who obey Jesus. He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them and delights in working “with them”
	in partnership (Mk. 16:20). He loves to see their relationships that result from walking in humility. Jesus spoke of *the Father loving those who love Jesus* three times (14:21, 23; 16:27).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선택과 열매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존중하신다. 아버지는 그들과의 관계를 즐기시며 동 역자로서 (막 16:20)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기신다. 그분은 관계의 결과로 그들이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14:21, 23, 16:27).

21…And he who loves Me [Jesus] will be loved by My Father…23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Jn. 14:21, 23)
21… 나[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23…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 (요14:21,23)

27…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Jn. 16:27)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때문] …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16:27)

* 1. The idea of the Father loving us “because” we love and obey Jesus confuses some because it appears to be a contradiction to the truth that we love God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Jesus does not begin to love us after we love Him; our love springs from His love for us.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은 일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에 (요일 4:19)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후에야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아난다.

19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1 Jn. 4:19)
19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 1. Jesus spoke of two expressions of God’s love: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표현에 대해 말씀하셨다.
		1. ***#1 God so loves the world*** ***in fullness*** (Jn. 3:16). The Father loves all people in the world redemptively in the sense of valuing, caring for, and pursuing them. God so loved the world with His infinite and everlasting love—He proved it by sending His Son to them. His love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is not caused or motivated by their goodness.
		**#1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신다**(요 3:16).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시고, 추구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속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들의 선함에 의해 야기되거나 동기화 되지 않는다.

16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n. 3:16)
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요3:16)

* + 1. ***#2 He loves or enjoys His relationship with those who obey Him***. He has pleasure in relating to those who value His love as evidenced by obedience. Paul referred to this as being *well pleasing* to God (2 Cor. 5:9). John spoke of himself as *“one of the disciples Jesus loved”* (13:23). God said something similar to Daniel, calling him *“beloved”* (9:23; 10:11, 19).
		**#2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하시고 즐기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겨 순종하는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후 5:9).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중 하나**”(요13:23)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그를 “**사랑하는 자**”(단9:23; 10:11, 19)라고 부르셨다.
		2. Jesus spoke of some being called “great” and some “least” in the kingdom. God will call their life choices “great” because they obeyed Him. This greatness is attained without regard for outward achievements. It is based on the size of one’s heart in obedience and love to Him.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크” 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다”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다”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함은 외적인 성취와 상관 없이 얻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에 기초한다.

19Whoever breaks [consistently]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men so, sha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does [consistently] and teaches them, h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Mt. 5:19)
19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항상]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항상]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5:19)

* 1. ***Manifest Myself to him***: Jesus linked obedient love to our capacity to experience God’s manifest presence (14:21, 23). A believer’s obedience does not earn God’s love, but it positions them to experience more of His love for them because they live in agreement with His heart and leadership.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현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연관시키셨다 (14:21, 23). 믿는 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리더십에 동의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1. The Father displays His enjoyment of the relationship of those who value His love as evidenced by a life of obedience. They experience His manifest presence more consistently.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을 가치 있게 여겨 순종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심을 드러내신다. 그들은 일관되게 점점 더 아버지의 현현한 임재를 경험한다.
		2. The nature of God’s love is that it increases when it is received and returned (Mk. 4:24-25). Our capacity to receive and return His love increases as we increase our agreement with Him. Obedience brings our mind and emotions into agreement with Jesus’ heart. He is infinitely beautiful, fascinating, and satisfying. Those who walk in agreement with Him enjoy Him more.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다시 드릴 때 그 사랑이 증가 된다 (막 4:24-25).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분과의 동의가 증가될수록 커진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하게 한다. 예수님은 한없이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만족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과 동의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린다.

24“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to you who hear,
more will be given. 25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Mk. 4:24-25)
24…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25있는 자는[더] 받을 것이요 … (막4:24-25)

* + 1. Our spiritual capacity to see and feel love increases as we love God by obeying Him.
		The more we love God, the more capacity we have to “see and experience” God’s presence.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할 때 사랑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증가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더 증가된다.

8“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experience] God.” (Mt. 5:8)
 8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경험할 것] 임이요 (마5:8)

* + 1. As we draw near to God, He draws near to us by releasing a greater measure of His presence.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풀어 주신다.

8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Jas. 4:8)
  8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 (약4:8)

1. Jesus elaborated on His call to enjoy His manifest presence (Jn. 14:22-24)
예수님은 당신의 현현한 임재를 즐기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다 (요 14:22-24)
	1. Judas wrongly assumed that Jesus was speaking of His physical manifestation in 14:21. In 14:23, Jesus restated and then elaborated on what He said in 14:15 and in 14:21 by adding two promises—He promised *inclusiveness* by adding the word “anyone” (instead of justthe apostles). He promised that it would be *more consistent* by saying, “We will make Our home with you.”
	유다는 예수님이 요14:21에서의 말을 당신의 육체적 현현 만을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14:23에서 예수님은 14:15와 14:21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고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더 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 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포괄성**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 우리 집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일관성 있게** 약속하셨다.

21“…And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manifest Myself to him.”
22Judas (not Iscariot) said to Him, “Lord, how is it that You will manifest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23Jesus answered…,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24He who does not love Me does not keep My words and the word which you hear is not Mine but the Father’s who sent Me.”
(Jn. 14:21-24)
21…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22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23예수께서 대답하여 …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24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1-24)

* 1. ***If anyone loves Me***(14:23): When Jesus said “anyone,” He removed all barriers to this promise. It is not limited by our life circumstances, education or training, social status, ministry impact, etc.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14:23):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환경, 교육 또는 훈련, 사회적 지위, 사역의 영향 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다.
	2. ***We will come to him***: We will come to him spiritually, to “rest” on his heart. Isaiah spoke of “God’s resting place” in His people instead of striving with them. The Spirit often strives, even with God’s people (Gen. 6:3). For God to rest or be at home speaks of more than a temporary encounter via a vision or dream. It speaks of God resting on our heart in a sustainable way (Isa. 66:1).
	**우리[하나님]는 그에게 갈 것이다**: 우리[하나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쉬기” 위해 영적으로 그에게 갈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다투는 것 대신에 그들 안이 “하나님의 안식처” 라고 말했다. 성령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과도 다투신다 (창 6:3). 하나님이 쉬거나 집에 계시다는 것은 환상이나 꿈을 통한 일시적인 만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쉬심에 대해 말한다 (사 66:1).

1…“Where is the house that you will build Me? And where is the place of My rest?…2On this one will I look: on him who is…of a contrite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Isa. 66:1-2)
1…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2…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사66:1-2)

* 1. ***We will make our home with him*** (14:23): In 14:2, Jesus referred to mansions or dwelling places (Gr. *monai*, plural) that He would prepare in heaven for His people. In 14:23, He says He and the Father would make their “home” (Gr. *monen*, singular) in Their people on the earth in a spiritual way by manifesting themselves to them—a “home” speaks of a more consistent manifestation.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이다** (14:23): 14:2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실 맨션이나 거처(헬. **모네**, 복수형)를 언급하셨다. 14:23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께서 지상에 있는 그들의 백성에게 당신들을 나타내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집”(헬. **모넨**, 단수)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집” 은 보다 일관되게 나타나심을 말한다.
		1. Jesus spoke preparing “a dwelling place for believers” in the age to come (14:2) and of those very believers being “a dwelling place for God” in this age (14:23)
		예수님은 장차 올 시대에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 를 예비하실 것이고 (14:2), 이 시대에는 바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 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4:23).
		2. Our heart can experience tokens of “heaven on earth” as we commune with God. Spurgeon said, *“Little faith will take your soul to heaven, but great faith will bring heaven to your soul while on still on earth.”*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땅 위의 천국” 의 징표를 경험할 수 있다. 스펄전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지만, 큰 믿음은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2. ***The word you hear is not Mine*** (14:24) His teachings were revelations of the Father (12:49; 14:10). They are part of God’s eternal plan. They are not following a man’s religious movement in Israel.
	The purpose to which Jesus called them is much bigger than what they understood. Jesus is not just one of many ways to God. Christianity is totally unique being much more than just another religion.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다** (14:24).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계시였다 (12:49; 14:10).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사람으로부터 난 종교 운동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이해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완전히 독특하다.

24…and the word which you hear is not Mine but the Father’s who sent Me.” (Jn. 14:24)
24…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 14:24)

1. the Spirit will give supernatural understanding and peace (Jn. 14:25-27)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이해와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요 14:25-27)
	1. Jesus realized that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much of what He had just taught them.
	So He promised them that they would understand His words later.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막 가르치신 것을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25“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while being present with you. 26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ings that I said to you. 27Peace I leave with you…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Jn. 14:25-27)
25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26보혜사 … 성령 …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27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5-27)

* 1. ***Things I have spoken while being with you***: The phrase, “while being with you,” represents the essential truths that were a priority to Jesus to emphasize to equip them at that time. He is “present with us” in a heightened way in those occasions that He speaks to us by His Word or by prophetic encounters. Be a student of the anointing in you. Be alert to times Jesus speaks directly to you.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 강조하셨던 핵심 진리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이나 예언적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에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당신 안에 계신 기름 부음에 대해 배우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에 경계하라[민감 하라].
	2. ***The Spirit will teach you all things***:Jesus elaborated on the ministry of the Helper spoken of in 14:16-17 by emphasizing that He would teach and bring to remembrance all things that Jesus said. Throughout our Christian life, the Spirit gives us various divine assignments and promises. Due to our human weakness, we do not remember things in our past that we promised to God that we would do. He reminds us of things that will matter most to us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은 14:16-17에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사역을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강조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걸쳐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성한 임무와 약속을 주신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신다.
	3. ***My peace, I give to you***: Jesus promised to give His peace as they did their part in not allowing trouble to dominate their heart. There are human dynamics involved in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The “let not” means actively engage in the truths. He will not do that for us. The peace Jesus spoke of here was not exemption from all conflicts.
	**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지배 당하지 않게 하는 그들의 몫을 다할 때 당신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음이 괴로워 “하지 말라” 라는 데에는 인간의 역동성이 포함 된다. “하지 말라” 는 것은 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모든 갈등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4. There are two kinds of peace in the Scripture—*peace with God* (Rom. 5:1). This means the war is over (we were once enemies of God and now are in His family. And the *peace of God* which passes all understanding—guards our heart and mind (Phil 4:7) amid stormy emotions.
	성경에는 두 종류의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롬 5:1). 이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빌 4:7).
1. Jesus’ perspective of His death—Glory and loving obedience (Jn. 14:28-31)
당신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 영광과 사랑의 순종 (요 14:28-31)
	1. Jesus exhorted them to agree with His view of His death and not only see it as separation from Him. Jesus wanted them to see the positive side of His death in His going to Father (Rev. 4-5) and not just the negative side that caused great despair to them and great personal suffering for Jesus.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고 당신의 죽음을 당신과 분리되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기를 원하셨지 (계 4-5장), 그들에게 큰 절망과 예수님을 위한 큰 개인적 고통을 초래한 부정적인 면만으로 보길 원치 않으셨다.

28“You have heard Me say to you, ‘I am going away and coming back to you.’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 am going to the Father,’ for My Father is greater than I…
29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that when it does come to pass, you may believe [and not waver].
(Jn. 14:28-29)
28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29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 14:28-29)

* 1. ***I am going away***:He spoke of leaving them before He overthrew Rome or set them on thrones and removed their enemies. They wanted a revolution for their nation that could be seen by all. Many can relate to this when they see God’s promised breakthrough for them delayed year after year.
	**내가 간다:**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제자들을 왕좌에 앉히거나 원수를 제거하기 전에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조국의 혁명을 원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돌파가 해마다 늦어지는 것을 볼 때 이에 공감할 수 있다.
	2. ***I am coming back to you***: He would return to them in His resurrected body for 40 days and by the indwelling Spirit (14:18). They would start to cultivate relationship with Him by the Spirit.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돌아 오실 것이었으며 또 내주하는 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었다 (14:18).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3. ***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Jesus’ paradigm of physical death is to go the Father where He would enjoy His glory forever. His departure greatly troubled them because it only seemed like loss for them, pain for Jesus, and the end of Jesus’ ministry.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도 기뻐하였으리라**: 당신의 육체적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패러다임은 당신의 영광을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떠나 가심은 제자들에게는 상실로, 예수님에게는 고통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끝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상심했다.
	4. ***My Father is greater than I***: Jesus was not implying that He was less than God. He clearly declared that He and the Father were one (Jn. 10:30; 14:9). As to Jesus’ essential nature, He was equal with the Father; but He voluntarily laid down His heavenly glory and subjected Himself to the limitations of a human body. The Father’s functional superiority over Jesus in the Godhead is Jesus’ point here.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요 10:30, 14:9). 예수님은 본성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이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복종 하사 인간의 몸이란 한계에 자신을 두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은 신격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시다는 것이다.
	5. ***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s***: Jesus said these things in advance to strengthen the faith of His disciples who later understood Jesus’ death as fulfilled prophecy.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후에 이해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었다.
		1. Prophetic revelation given in advance shows God’s people that God knows what will happen and is in sovereign control over the events and that they are important to His plan which is certain to come to pass. This brings confidence, urgency, and relevance.
		예언적 계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과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감, 긴급성 및 관련성을 제공한다.
		2. Jesus gives prophetic insight beforehand so that His servants will not quit in the face of pressure. It is significant that Acts 2:17 will be on “all flesh.”
		예수님은 미리 예언적 통찰력을 주셔서 당신의 종들이 압력에 직면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17이 “모든 육체” 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6. Jesus only had a short time left to share more important things before the Romans arrested Him.
	We esteem John 15-17 as the truths that Jesus felt were essential as His last words to them.
	로마 군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들을 나눌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필수적이다고 느끼셨던 진리로써 요15-17장을 여긴다.

30I will no longer talk much…for the ruler of this world is coming, and he has nothing in Me. (Jn. 14:30)
30…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14:30)

* 1. ***The ruler of the world is coming***: Satan came in the person of Judas bringing the Roman guards to arrest Him (13:2, 27). I assume they went to upper room first and then to the garden (14:31; 18:1-4).
	**세상의 임금이 온다**: 사탄이 사람인 유다 안에 들어 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경비병들을 데려왔다 (13:2, 27). 나는 그들이 먼저 다락방으로 갔다가 정원으로 갔다고 추측한다 (14:31; 18:1-4).
	2. ***The ruler of this world has nothing in Me***: Jesus’ death was not an indication that Satan had won a victory over Jesus, but it was the most costly display of love for the Father—that changed history. Satan had some control over the events associate with Jesus’ death but had no authority over Jesus who voluntarily submitted to death to fulfill God’s will (Rom. 8:32). Satan gained no advantage or anything at all by killing Jesus. Satan was defeated at the cross (Col. 2:15).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내게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예수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가장 값비싼 사랑의 표명으로 역사를 바꾸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에 굴복한 예수님에 대해 어떤 권위도 없었다 (롬 8:32).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어떠한 이득도 결코 얻지 못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골 2:15).

32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shall He not with Him also freely give us all things? (Rom. 8:32)
32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뉴 킹 제임스 역]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롬8:32)

15Having disarmed principalities and power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in it [the cross]. (Col. 2:15)
15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2:15)

1. Jesus will be fully vindicated in God’s perfect time (Jn. 14:31)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완전히 정당화 될 것이다 (요 14:31)
	1. Jesus knew that in God’s timing every living being would know the truth about Jesus—that He was not a failed Messiah. “I LOVE THE FATHER” will be stamped all over His story forever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 즉 그분이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아셨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은 그분의 이야기 전체에 영원토록 새겨질 것이다.

31But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Arise, let us go from here.” (Jn. 14: 31)
31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14:31)

* 1. Jesus knew that God would vindicate His obedience to Him in the Father’s time.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입증하실 것임을 아셨다.

19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Look, a glutton and a winebibber,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isdom is justified by her children.” (Mt. 11:19)
19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마11:19)

8…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9Therefore 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10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ose in heaven, and of those on earth, and of those under the earth, 11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Phil. 2:8-11)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 (빌2:8-11)

* 1. ***As the Father gave Me commandment, so I do***: Jesus’ willingly submitted to the Father’s command to go to the cross to die. He sent Jesus to the earth for this purpose (Jn. 12:27). Jesus’ love for the Father is the model for our expressing our love to God.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행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셨다. 아버지는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 12:27).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본보기이다.

27“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purpose I came to this hour.” (Jn. 12:27)
27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 12:27)

23Him [Jesus], being delivered by the determined purpose and foreknowledge of God, you have taken by lawless hands, have crucified, and put to death… (Acts 2:23)
23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행2:23)

* 1. ***Arise, let us go from here (14:31)***: Jesus told them to rise up from the table to go to another room. It is assumed by many that at this time Jesus left the guest-chamber where they ate the meal to the to a room in the temple complex or close by. The words in 15:1 lead us to assume that they were spoken in the **s**ame building or under the brightness of the full moon at Passover in some corner of the temple area, or some private place on the way to Gethsemane. They went “out” of the temple complex (?) to cross the Kedron to enter Gethsemane until after His prayer in John 17 (Jn. 18:1).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14:3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탁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자 라고 하셨다. 많은 사람들의 추축은 이때 예수님이 그들이 만찬을 하던 손님방을 떠나 성전 단지나 그 근처에 있는 방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요15: 1의 말씀은 같은 건물에서 말해졌을 수도 있고, 아님 성전 지역의 한 모퉁이나, 겟세마네로 가는 길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유월절의 밝은 보름달 아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그들은 요한복음 17장 (요 18:1)의 기도가 끝난 후 겟세마네로 들어가기 위해 기드론을 건너가기 위해 성전 단지(?)를 “떠났다.”

1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went out with His disciples over the Brook Kidron, where there was a garden…2Judas, who betrayed Him, also knew the place; for Jesus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4Jesus therefore, knowing all things that would come upon Him…said to them, “Whom are you seeking?” (Jn. 18:1-4)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2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4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 18:1-4)